

서 면 질 문 요 지 서

질문 의원명	김 영 철	소 속	경제건설위원회
질 문 주 제	울주군민이 주체가 되는 ‘반구천의 암각화 축제’ 추진 제언		
제출 연월일	2025. 7. 23.		

질 문 요 지

- ‘반구천의 암각화’는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울주군의 소중한 선사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단순한 관광 명소화에 그치지 않고, 유산이 가진 문화적 상징성과 예술성을 담은 ‘반구천의 암각화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울주군민이 축제의 형식적인 참여자에 그치지 않고,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향후 ‘반구천의 암각화 축제’가 울주군민 중심의 축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울주군 행정의 군민을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서 면 질 문 서

질문 의원명	김 영 철	소 속	경제건설위원회
질 문 주 제	울주군민이 주체가 되는 ‘반구천의 암각화 축제’ 추진 제언		

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주군 반구천 계곡을 따라 자리한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아우르며, 수천 년 전 선사인의 삶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이후 15년
간의 오랜 노력 끝에, 지난 7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우리 문화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쾌거이자 울산이 산업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
인지, 더 나아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세계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입니다.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의 향후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5대 전략 분야와 22개 핵심 사업’을 발표하고,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체험형 테마파크 및 탐방로·자전거길 조성 등 반구천 일대의 관광 명소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현재 울주군은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반구천의 암각화 관련 명소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는 △스탬프투어 △관광택시 ‘반구천 일원 탐방’ △반구천 투어 AR 게임 울주대모험 등 관광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관광 명소로 즐기는 데에 그치지 않고,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문화적 상징성과 예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유산이 지역 정체성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구천 일대는 자연과 선사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그 자체가 거대한 예술 무대이자 이야기의 원천입니다. 이에 따라 선사 문화를 체험하고 고대와 현대를 잇는 예술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교육·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콘텐츠형 문화축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참여형 암각화 트레일 조성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현대예술과의 융합 전시 등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구대의 암각화 축제가 진정한 세계 유산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울주군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군민이 축제의 형식적인 참여자, 즉, 들러리로만 머무르지 않고, 기획 단계부터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마을 주민, 상인, 지역 예술인 등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진다면, 반구천의 암각화 축제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열리는 축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지속적으로 향유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주군 행정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향후 ‘반구천의 암각화 축제’가 울주군민 중심의 축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울주군 행정이 군민을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단지 문화적 훈장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의 가치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유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울주군민의 자긍심이자 모두가 함께 가꾸는 살아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울주군 행정의 책임 있는 계획과 명확한 입장을 기대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